

구로 관음포교원

법공양 페이지

-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 지의 편집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 과는 별도로,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 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구로 관음문화원장 일명 스님

"완벽한 음향장비의 설치가 기획행사나 대형법회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참여대중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음향장비의 고급화와 전문화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관음문화원은 어떤 형태의 불교행사라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해조음과 같은 소리의 완벽성을 담보한 음향시설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음향장비 무상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여러계를 조합하고 또 직접 제작해 나시키도 하면서 완벽한 소리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이룬 것이 관음포교원 문화원이며, 현재 6명의 전문요원이 스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10여이라는 만만치 않은 재정적 투지로 준비한 음향설비인 만큼 그 쓰임새도 깊어야 한다는 스님은 그간 관심 밖의 일로 인식되어 온 사찰내 음향시설의 설치작업에도 확고한 기술 지원을 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법당은 목재와 흙으로 건조됐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소리의 흡입과 반사율이 적절해 음향조건이 탁월하다"는 스님은 시설설비문의 하드웨어 즉 적 지원과 함께 이벤트와 기획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로 관음포교원내 문화원을 개설하고 불교계에 음향장비 무상대여 및 기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명 스님은 소리를 통한 대중포교의 열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원내에 완벽한 방음장치와 매머드급 멀티엠프 시스템을 완비해놓은 스님은 20여년간을 소리의 완성을 위해 수행의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스님은 세계적인 오디오 매니아들도 혀를 내두를 스트레이트 우드혼을 지

이런 스님의 활동은 이미 관음포교원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강좌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음악강좌와 오전시간을 활용한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강좌, 오디오전문가를 위한 음향비교시청 음악회는 하루가 다르게 신



불국토 여는 해조

최첨단 음향시설 무료



매머드급 멀티엠프와 우드혼

관음문화원이 보유한 음향장비는 전문문화와 대형회가 돋보인다. 전문매니아들이 조합한 멀티엠프와 일명스님이 음향공학으로 설계·제작한 스트레이트 우드혼은 5톤트럭 2대 분량이 넘는다. 이들 장비는 사찰은 물론 대형광장에서 생생한 소리로 전가를 발휘하고 있다.

"소리연구 수행삼기 20년 음향포교로 회향합니다"

꿈 고안 제작하기까지 했다. 1개당 1억을 호가하는 이 스트레이트 우드혼을 20개나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멀티엠프 시설도 전문성을 뛰어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설의 완성을 불교계 행사장으로 회향하고 있는 스님은 "전문적인 음향설비를 통해 완벽한 소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교문화 형성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향에 대한 스님의 관심은 행사장에서 개인의 신명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음악을 듣고 순수해진다"는 것과 명상을 통해 내적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수행하는 자세와 통한다"는 것이 스님의 확신.

스님이 음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5년 전 광주와 청소년 법회때의 일이다. 처음엔 50여명만이 법회에 참가하던 것이 전문적인 음향시설을 지원해주고 확실한 음성을 전해준으로 5일째 회향법회에는 5백여명으로 늘어나 음향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기술을 익히

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관음 문화원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전문 음악 감상실로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인들의 관심과 음악을 통한 마음탁이에 몰입한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질 새가 없다.

스님은 소리를 통한 대중포교에만 머물지 않고 내적 깨달음의 방편으로 실질적 기도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내적 깨달음의 세계를 열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포교원내 백일기도 용맹기도 할이기도 등을 직접 지도한다. 백일기도에는 80여명의 신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정진의 열성을 보인다.

"음향시설지원사업을 구라나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계의 무관심이였다"는 스님은 "불교문화를 향상하고 대중포교를 이끌어 갈 음향시설지원 불사에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여러 불자들이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2천명이하의 대중이 모이는 중형급 행사에 동원되는 음향기기를.



◇ 초보지에서 전문가까지 각종 음악강좌가 열려 불교음악 세계를 넓혀가는 관음문화원 내부.

생생한 自然音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최고 품질의 음향기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어산 덕 높으신 스님들의 법문 소리로서 감동을 주고자 옛 선인들은 산수를 연마하고 법당의 음향이 최적이 되도록 천정을 높이고 한창(韓窓)과 포(包)로써 장엄했습니다.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에서 음향기기 설치는 스님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 관음포교원·불교음향연구원에서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최소의 설치비용 훌륭한 설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전문 음향설비 기사에 의한 시설, 설치 자문, 음향 측정 및 설치, 철저한 A/S 관리등을 해드립니다.

설치내역

- 안전 불행사
- 단상 구연사(천대) 흥반신
- 관악선 연주실
- 화실 신축시 청소년수련관
- 목동 청소년회관
- SBS드라마센터 STUDIO SETTING
- 한국음악방송 녹음실(여의도소재)
- 서울문화재단 방송국 녹음실
- 대구문화재단 방송국 녹음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
관음포교원·불교음향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대) FAX. 864-1066

